

Living the Lotus 6

2024
VOL. 225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Northern California Cherry Blossom Festival
Risho Kosei-kai Members in North America
Participate in the Grand Parade in San Francisco

Living the Lotus Vol. 225 (June 2023)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문미디어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편집 스태프: 국제전도부 스태프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코 개조님과 나가누마 모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범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범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편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산다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푸른 잎이 비에 씻겨져 유난히 눈에 띄게 되는 계절이 곧 찾아옵니다. 다만 비는 습도와 기온의 상승과 함께 마음까지 흥건히 적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마음만이라도 쾌청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멋진 시 한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인 타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郎)씨가 영어로 번역된 <법구경(法句經)>에서 공감한 구절을 일본어로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화하게

즐거움을 쫓아가면 / 슬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

너무 깊이 빠져들면 / 괴로움이 영원히 감돕니다. 잃을 것이 없는 마음에 /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분노가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 자만심이 당신을 움아매고 / 마음을 구속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거라, 마음이어 / 평온하게 유연하게 명랑하게

(『건강하게 온화하게 유연하게』 교성출판사)

책 띠지에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라고만 쓰여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렇다고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온화하게, 평온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마음은 그야말로 항상 산뜻하고 맑고 안온하여 - 집착도 불안도 근심도 없는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석존께서는 우리들을 안온의 경지로 이르게 해 주는 것은 ‘정진(精進)’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진을 되풀이하는 속에 그러한 편안한 날들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항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불교는 「무상(無上)의 가르침」이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가르침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하다고만 하지 말고, 아무리 배워도 한계가 없는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배운 것을 하루하루 실천한다 — 이것이 우리들을 안온으로 이끄는 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몸으로써 하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냥함이나 배려, 밝고 따뜻한 대응 등, 배운 가르침을 일상 생활 속의 행위 하나하나에 살리는 것이 정진이며, 그러한 순간순간의 축적이 마음 편안한 나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운 가르침」이라고 해도 무엇을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이어가면 좋을지 헤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사람이나 「이와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있고 싶다」라는 「의지」에 따라 사람마다 각자의 정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시(신시身施)로 통하는 정진이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가능한 한 폐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도 정진의 하나입니다.

직업상의 일은 물론, 일상에서의 집안 일 - 취사나 세탁, 육아 등 - 에도 항상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것도 훌륭한 정진입니다. 즉 스스로의 항상을 바라면서 그 의지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곳에 각자의 「정진」이 있으며, 그것이 기쁨과 편안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맑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 계절인 만큼 토이요시오(東井義雄)선생이 얘기했던 「비가 내려도/투덜투덜대지 말라/비가 오는 날에는/비가 오는 날의 삶이 있다」는 구절을 본받아서, 싫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새로운 삶을 발견해 본다고 하는 정진은 어떨까요?

그날 하루는 분명 평온하고 기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교성』 2024년6월호



Spiritual Journey

승가와 함께 가르침을 함께 배우며, 이 몸을 쓰고 싶다

산안토니오 지부 케빈 로셰이
ケヴィン・ロシェ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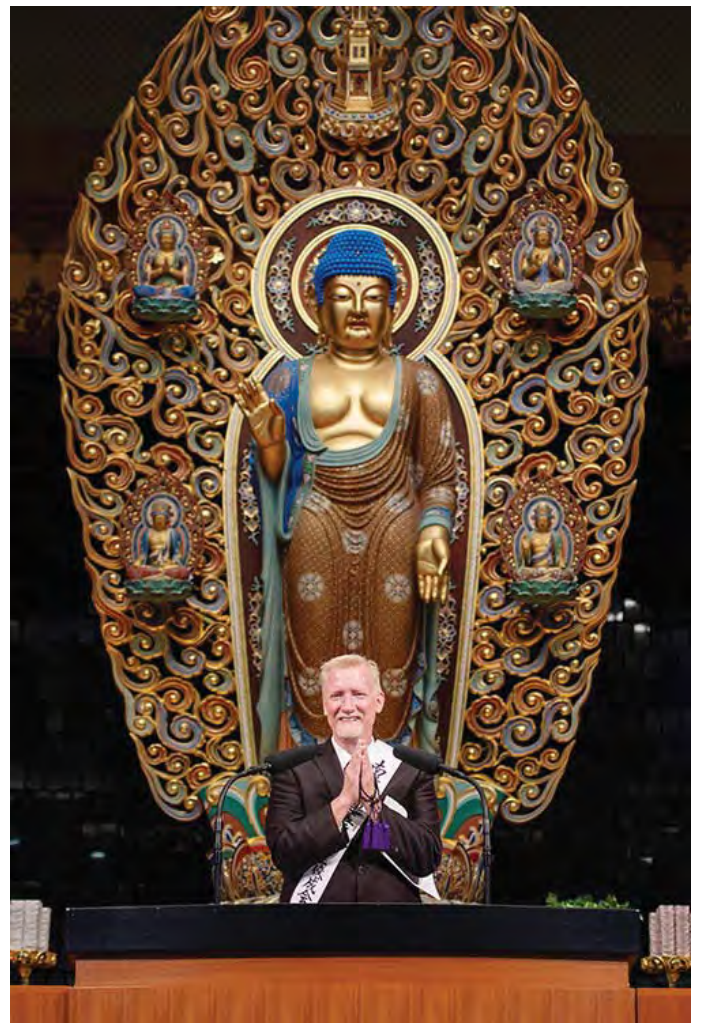
이 체험설법은 2024년3월15일에 대성당에서 열린 「석가모니불 공양일 법회 (포살의 날)」에 발표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케빈 로셰이 입니다. 현재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산안토니오 지부 부교회장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입정교성회 가르침과 실천에 의해 구제받은 체험에 대해서 설법을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곱 형제 중 다섯 번째로,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FBI수사관이었고, 어머니는 카톨릭 수도녀 커뮤니티에서 요리담당 겸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로서 키워져, 당신들이 키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보살피며 저희들 형제들을 키워 주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화를 불끈 내기 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에서는 문제아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의 학교에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었으며, 저는 주위 어른들로부터 체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된 저는, 소년 시절부터 알코올을 마시고 약물을 남용하며 마을의 위험한 구역을 들락날락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9살 이후, 즐거운 학교 생활



대성당에서 설법을 하는 □□ 부교회장님

을 보낸 기억은 전혀 없었으며, 슬프고 끔찍한 일들과 반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과도 함께 있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안토니오에 살고 있던 누나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주어, 저는 집을 나와 텍사스로 이주하였습니다. 알코올을 끊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였습니다만, 당시의 환경과 교우 관계로부터는 간신히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소년기때 가족들과 함께 (앞 줄 중앙)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관계 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잠시 일본의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때 저는 처음으로 알코올을 끊고 마음이 온화하고 편안한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귀국한 후, 다시 알코올과 약물에 빠진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 이혼을 하여, 1986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89년, 현재의 아내인 ‘바바라’라는 훌륭한 여성을 만나면서 저의 세계는 일변하였습니다. 제 부인은 오늘, 저와 함께 이 대성당에 와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저에게 알코올과 약물을 끊도록 권유해주었으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를 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점점 사라져 갔으며, 제 자신의 고귀한 불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후, 35년 동안 저희들은 텍사스의 농장에서 말과 당나귀, 라마, 개를 키우면서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귀한 가르침과 만난 것은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산안토니오의 작은 건물 앞을 지나는데, 원래 한자로 써 있던 건물 간판이 영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영어로 ‘입정교성회 : 누구라도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도량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간판의 변화는 부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안토니오 지부에서 처음으로 나카무라 나오미 전 포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포교사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며 따뜻한 말투로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내 집에 돌아온 듯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후, 나카무라 포교사님은 입정교



□□□ 지부에 계시는 나카무라 나오미 전 포교사님을 □□□

Spiritual Journey

성희의 신앙, 석존과 개조님의 가르침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들으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혼이 흔들리며 동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산안토니오 지부에는 일본어 회원과 영어 회원이 있었는데, 영어 회원은 인원수가 50~70명 정도의 작은 승가였습니다. 나카무라 포교사님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바라며 매주 화요일 밤, 법화경 공부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배우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8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저는, 바로 나카무라 포교사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에 가서 법당에 앉아 여래수량품을 독경하세요”라고 말씀 하시며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신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제한을 초월한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만, 후에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나카무라 포교사님이 퇴임하셨습니다. 후임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승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몇 년 사이, 탈퇴와 고령화로 인한 (역할)은퇴로 인해 회원수도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은 승가를 이끌어 줄 리더를 원하고 있었었습니다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자신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무서웠었습니다. 짙은 어둠속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만, 저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과 같은 인생으로 되돌아 가버린다는 생각에 승가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명의 회원들에게 권유하여 동네 쇼핑센터에 모여 ‘법화삼부경’과 개조님 가르침 공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적은 인원수였지만, 영어 승가가 다시 조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고독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격려해준 것은 오크라호마 교회의 크리스 라도스 교회장님이었습니다. 제가 크리스교회장님께 전화를 하면 반드시 전화를 받아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Spiritual Journey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크리스 교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어떻게든 정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 교회장님의 지혜와 격려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즈음, 한 훌륭한 회원이 입회를 하였습니다. 산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가 되어 영어 회원이 가장 적었던 시기에도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세월동안 암을 앓고 있었지만, 절대로 힘든 티를 일체 내보이지 않고, 항상 주위를 밝게 해 주었습니다. 저와 산디는 도량에서는 물론, 매주 산책을 하면서도 정신없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그야말로 범의 벗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2일 전,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염주를 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통의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읽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 봉투를 열어보니 속에 들어 있던 편지에는 지금까지 저와 나눈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그날의 일을 기록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 할 지라도, 순간 순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녀의 고귀한 실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이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신기한 우연인지, 산디가 죽고 난 후 저는 바로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습해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치료를 위해 화학 요법을 몇 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암 치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만,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량을 다녔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산디처럼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승가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가르침을 전달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코다카 전 로스앤젤레스 교회장님께서 교사자격 수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놀람과 동시에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당시, 지부에는 본보기로 삼을 영어 회원 리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저는, 이전의 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부처님 개조님의 가르침을 산안토니오에 널리 알리며, 승가 분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결정된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당신을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나카무라 전 포교사님의 말의 의미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저희들 승가는 새로운 훌륭한 리더들을 키우며, 또 각자 여러가지 배경을 가진 열정적인 신입회원들을 많이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저는, 산안토니오 지부 부교회장 역할을 받아, 매일 감사하며 회원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좌와 연수회를 통해 지부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구체되어 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원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체험은 인생의 상처 자국이



サンアントニオ支部の会員たちと「三草二木の譬え」の劇を演じた後に (最後列中央)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며, 그것은 눈부시게 빛이 나며, 치유와 감동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현재 지부의 회원은 400명 가까이까지 늘어났습니다. 승가 여러분들의 보살행은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 저를 한 사람의 포교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선생님께서 ‘교성’ 2017년 10월호 법화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귀중한 경험으로써 “감사한 것”이라는 것도, 여러 체험을 해 보고 비로소 “아아 정말로 그렇구나” “고가 있으니 락(樂)인 것이구나” 하고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입정교성회 승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산안토니오 지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주머니는 괴로웠던 일들로 가득합니다만,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만, 마음에 힘이 나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산안토니오 지부의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오늘 부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가르침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성당에서 설법 후, 응원하러 와 준 친구와 본부 직원들과 함께



역할이 있는 사람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닛쿄



그와 같은 「이타(利他)」행은 타(他)를 이익 되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리(自利)」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이타행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한 걸음씩 인격적으로 향상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교성회에서의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가령 그것이 쉬운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착실하게 해낼 때,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 옵니다. 그것도 「역할」을 하다보면 부처님의 「배려·주선」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역할」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이상인 부처의 경지에 가까이 가는 한 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할은 이익이며, 또 역할은 성불이니」라고.

단지 현실적인 문제로서 「역할」을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큰 역할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역할이다」라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신앙의 공덕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고 「어떤 역할이라도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구제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우겐(道元)선사는 「행하기 쉬운 것을 행한다는 것은 불도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불도에 맞는」 것이며 진정한 공덕을 얻게 됩니다. 부디 도원선사의 말씀을 차분하게 음미해보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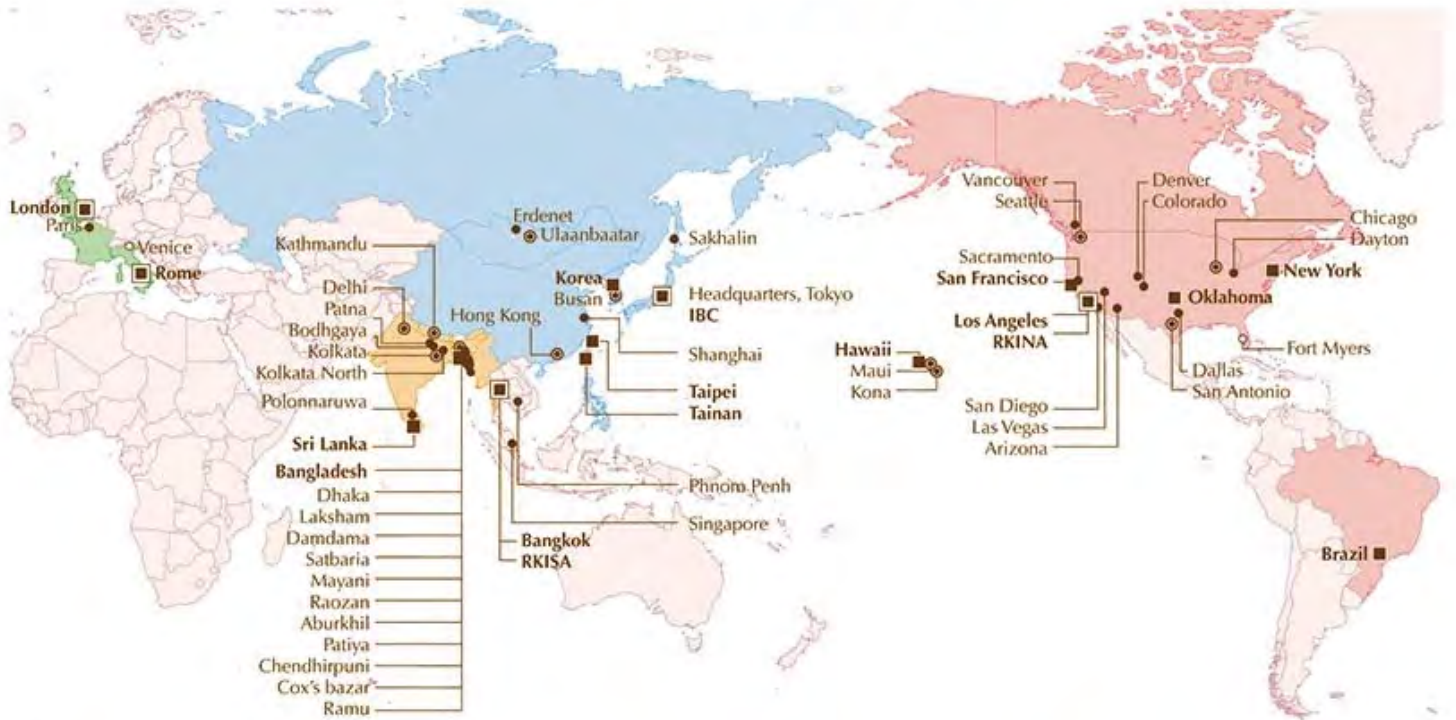
니와노 닛쿄 평성(平成) 법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twitter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